

페루 광업의 최근 현황과 전망

1. 개 요

□ 풍부한 매장량에 기반한 세계 광물자원의 보고

○ 안데스산맥에 위치한 페루는 지질학적인 이점에 힘입어 은, 구리, 아연, 금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임.

- 2010년 매장량 기준으로 은 세계 1위, 구리 2위, 아연과 주석 3위, 몰리브덴과 셀레늄 4위에 달함.

- 또한, 최근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금은 전 세계 매장량의 3.9%에 해당하는 2천 톤이 매장되어 있음.

<표 1>

페루 광물자원 매장량

단위: 천 톤

광물자원	페루(A)	세계(B)	A/B(%)	순위
은	120	510	23.5	1
구 리	90,000	630,000	14.3	2
아 연	23,000	250,000	9.2	3
주 석	710	5,200	13.7	3
몰 리 브 덴	450	9,800	4.6	4
셀 레 늄	9	88	10.2	4
납	6,000	80,000	7.5	5
붕 소	4,000	210,000	1.9	6
카 드 뮘	45	660	6.8	6
금	2	51	3.9	8

자료: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1.



□ 광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

- 광업은 최근 수년간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페루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투자, 소득, 고용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 광업계의 직접 고용 인력은 6만 7천 명, 간접 고용 인력은 33만 5천 명이며 관련업종의 고용인구는 총 150만명으로 페루 총 인구의 5.4%에 달함.

□ 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일반광업법¹⁾(Ley General de Minería)을 개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동 법에 의하면 광업부문 투자 기업은 현지화 및 외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보유한 외화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 또한 외국 기업의 배당금, 로열티 등의 해외 송금에 제한이 없음.
- 투자계획 승인 시에 투자 기업은 페루 정부와 경영안정 계약을 체결하고, 페루 정부는 지원사항을 문서로 보증함으로써 투자 및 계약에 관해서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음.

2. 현 황

가. 생산 현황

□ 세계 광물자원의 생산기지

- 풍부한 매장량과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바탕으로 광물자원 생산량이 세계적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은의 생산량은 4천 톤으로 세계 생산의 18%가 페루에서 생산되었음.
- 또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구리, 아연의 생산량은 각각 130만 톤, 150만 톤으로 세계 생산의 7.9%와 12.7%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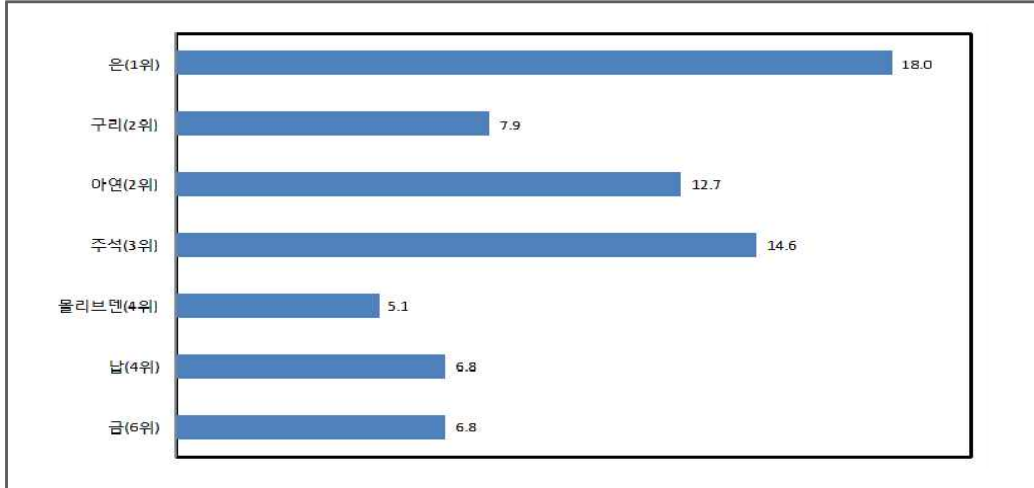
1) 1992년 후지모리 정부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광물 소유권과 기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차별을 철폐함.



<그림 1>

페루 광물자원 생산비중
(2010년 기준)

단위: %



자료: <표1>과 동일.

- 그 밖에 주석(3.8만 톤), 납(28만 톤), 몰리브덴(1.2만 톤), 금(170 톤) 등의 생산도 활발함.
- 광종별로는 국제가격 호조 및 신규투자 증대로 구리의 생산량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칠레에 이어 세계 2위의 생산량을 기록함.²⁾

나. 수출 현황

□ 세계 광물자원의 공급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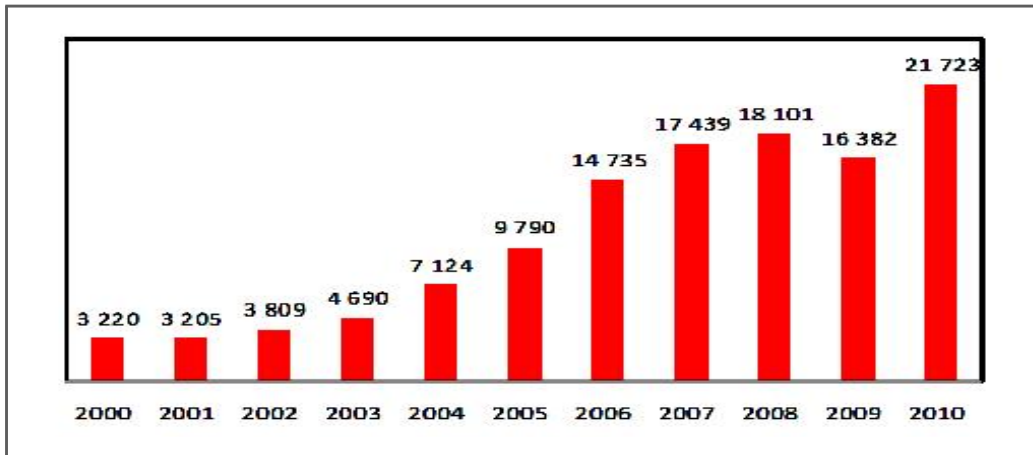
- 자원의 보고인 페루는 생산된 광물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며 광물자원의 공급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10년 기준 페루의 국별 수출대상국은 중국(19.9%), 스위스(16.0%), 캐나다(12.2%), 미국(10.5%), 일본(8.0%), 독일(4.6%) 순으로 나타남.
- 국제 광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최근 5년간 광물 수출은 연평균 20% 증가하며 2005년 98억 달러에서 2010년 217억 달러로 배 이상 증가하였음.

2) 2005년 790천 톤을 기록했던 구리 생산량은 최근 5년간 65%의 성장률을 보이며 2009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 생산국으로 부상함.



<그림 2> 페루 광물자원 수출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ntral Reserve Bank of Peru.

- 광물은 전통적으로 페루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목으로 총수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 광종별로는 몰리브덴 수출이 전년대비 78.4%를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이밖에도 철(75.7%), 구리(49.5%), 납(41.5%), 주식(38.5%) 등이 현저한 수출 증가세를 보임.

<표 2> 페루의 주요 광물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광물자원	2009	2010	증감률
몰리브덴	276	492	78.4
철	298	523	75.7
구리	5,934	8,870	49.5
납	1,116	1,579	41.5
주석	479	663	38.5
아연	1,233	1,691	37.1
금	6,805	7,756	14.0
은	214	118	-44.8

자료: <그림 2>와 동일.



다. 진출 현황

□ 풍부한 광물자원과 안정적인 투자환경으로 외국기업 진출 활발

- 페루는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갖추고 있어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쇄도하고 있음.
 - 광종별로는 구리개발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진출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광개발에 기업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음.
- 한편, 페루는 세계적으로 광물탐사가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2009년 기준 투자금액이 전 세계 7%를 차지하며 캐나다(16%), 호주(13%)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음.

<표 3> 페루에 진출한 주요 광물기업 현황

진출 기업	광종	진출 위치
서던 코퍼 (Sourther Copper)	구리	쿠아호네(Cuajone), 토케팔라(Toquepala), 모스케쿠아(Mosquegua)
콤파니아 미네라 안타미나 (Compania Minera Antamina)	구리 아연	안타미나(Antamina), 우아리(Huari), 안카쉬(Ancash)
비에치피 빌리톤 틴타야 (BHP Biliton Tintaya)	구리	틴타야(Tintaya), 쿠스코(Cusco)
소시에다드 미네라 세로 베르데 (Sociedad Minera Cerro Verde)	구리	세로베르데(Cerro Verde), 아레키파(Arequipa)
미네라 야나코차 (Minera Yanacocha)	금	야나코차(Yanacocha), 라키아누(La Quinoa), 마키마키(MaquiMaqui), 카하마르카(Cajamarca)
미네라 배릭 이스키칠카 (Minera Barrick Misquichilca)	금	피에리나(Pierina), 알토차카마(AltoChicama)
도 런 페루 (Doe Run Peru)	은,납	라오로야(La Oroya), 후닌(Junin)
소시에다드 미네라 코로나 (Sociedad Minera Corona)	은	우알가육(Hualgayoc), 카하마르카(Cajamarca)
콤파니아 미나스 아르카타 (Compania Minas Arcata)	은	아르카타(Arcata), 아레키파(Arequipa)
볼칸 콤파니아 미네라 (Volcan Compania Minera)	아연	세로파스코(Cerro Pasco), 산크리스토발(San Cristobal), 안다이차구아(Andaychagua), 후닌(Junin)

자료: B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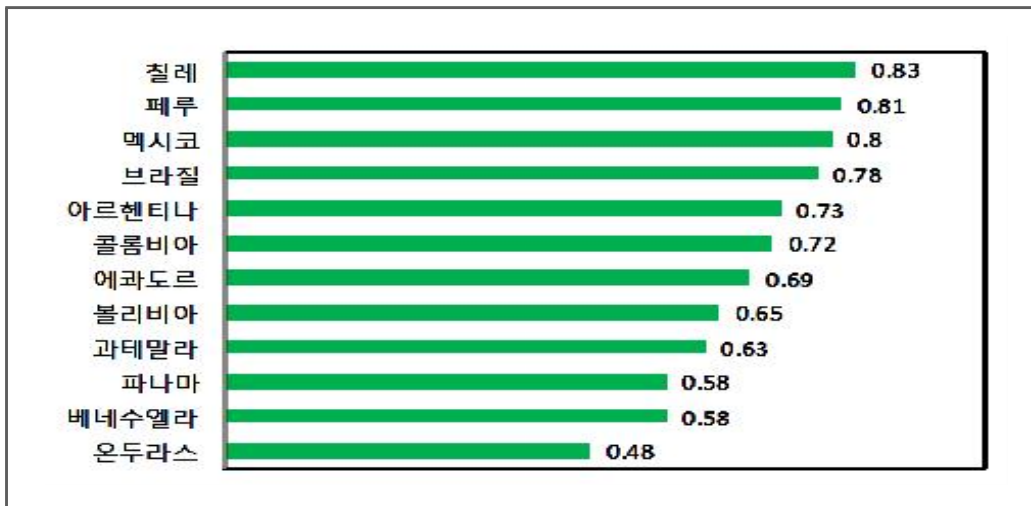
3. 전망과 시사점

□ 세계 경제성장에 따라 광물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중국, 인도 등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주요 원자재인 광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특히, 중남미는 풍부한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반해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이 지역에 대한 광물개발 프로젝트는 당분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페루는 칠레와 더불어 중남미 국가 중 광업 분야에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는 국가로 투자와 관련된 법규 체계 구축, 낮은 생산단가 등 우호적인 투자환경³⁾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캐나다 공공 연구소인 프레이저(Fraser)에 따르면 페루는 광물잠재력에서 중남미 국가 중 칠레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음.

<그림 4>

중남미 광물잠재력 순위



자료: Fraser, *Annual Survey of Mining Companies 2009/2010*.

3)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2011년 기업경영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1)에서 페루는 2010년 46위에서 2011년 36위로 상승하였으며, 최근 지속적인 순위상승을 보이고 있음.



□ 광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개선이 시급

- 풍부한 매장량과 우호적인 투자환경에도 불구하고 페루의 인프라 부족 문제는 향후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⁴⁾
 - 페루 정부는 이를 위해 2010년 7월 ‘독립 200주년 계획’⁵⁾(Plan Bicentenario)을 통해 인프라 개선에 대한 장기 플랜을 수립하였으며, 도로, 항만, 전력 등 기본 인프라 확충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향후 광업부문의 성장잠재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 모색

- 페루는 세계 광물자원의 보고이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우리기업의 진출 여지가 크며, 페루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사업기회도 풍부한 국가임.
 -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된 국내기업의 페루 광물자원 개발 진출 사례는 5건에 불과함.⁶⁾
- 최근 수년 간 지속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페루에 진출해 있는 해외 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자원안보 측면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이 요구되고 있음.
 - 자원개발 사업은 특성상 민간기업 단독으로 투자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광물자원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역할을 확대하여 선제적인 진출을 피함으로써 민간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함.
 - 또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인 점을 고려하여 수출입은행 등 국내 ECA의 체계적인 지원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최 철 영】

4) 2011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39개국 중 73위를 차지하였으나, 인프라 전반에 대한 평가순위는 88위를 기록하였음.

5) 알란 가르시아 정부의 국가전략기획센터(CEPLAN)가 발표한 페루의 독립 200주년인 2021년까지의 국가 장기발전계획임.

6) 가장 최근에 보고된 사례로는 2010년 9월 고려아연의 파차파키(Pachapaqui) 광산 인수건으로 동 광산은 아연 53만 톤, 납 15만 톤, 구리 6만 톤, 은 5백 톤 등 다양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음.